

니가 가 라 라 오 스

딘운파라가 전하고픈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9 월 호

라오스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안쓴다?

라오스는
남녀가 같이
샤워를
한다?

몽족은
10대에
결혼을 한다?



목 차

ㄱ 오스오스라오스

ㄴ 라오스를
소개합니다

ㄷ 활동보고

ㄹ 개인에세이

7. 오스오스 라오스



우리의 라오스 이름을 소개합니다

푸딘탱 유스센터 (PYC) 스태프인 캄손, 캄밍, 깨오, 시몬이 만들어 준 이름



김태우 = **딘, DIN**

의미: Soil

선택 받지 못한 후보 이름들!

후보1. 잔(의미: Moon)

후보2. 남 (의미: River)

“ 내 후보 이름들은 다 남성적인 이름인 것 같아. 그 중에 가장 친근하게 불릴 수 있고 뜻이 가장 마음에 드는 딘을 택했는데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아. 맘에 들어! ”

우리의 라오스 이름을 소개합니다

푸딘탕 유스센터 (PYC) 스태프인 캄손, 캄밍, 깨오, 시몬이 만들어 준 이름



성 롱 = **운, WOON**

의미: Warm

선택 받지 못한 후보 이름들!

후보1. 자이(의미:Heart)

후보2. 싸이 (의미:Sand)

“

내 후보 이름들은 다 따뜻함이 묻어나. 내가 따뜻하긴 하지. 사진만 봐도 따뜻한 시골남자가 떠오르지? 다른 사람보다 따뜻해서 그런지 여기 좀 덥다.

”

우리의 라오스 이름을 소개합니다

푸딘탕 유스센터 (PYC) 스태프인 캄손, 캄밍, 깨오, 시몬이 만들어 준 이름



장예찬 = **파, FA**
의미: Sky

선택 받지 못한 후보 이름들!

후보1. 완(의미: Day)

후보2. 자이 (의미: Heart)

“ 내 후보 이름들이 뭔가 넓은 의미인 것 같아. 내가 키가 커서 그런가...
라오스에서 웬만한 남자보다 커.. 내가 홈스테이하는 우리집에서 내가 제일 커.. ”

우리의 라오스 이름을 소개합니다

푸딩당 유스센터 (PYC) 스태프인 캄손, 캄밍, 깨오, 시몬이 만들어 준 이름



황재원 = **라, LA**
의미: Cute or Youngest

선택 받지 못한 후보 이름들!

후보1. 폰(의미:Rain)

후보2. 남 (의미:River)

“ 내 후보 이름들이 왜 모두 물에 관련된 것인지 궁금해, 나를 보면 물이 떠오르나? 내가 슬퍼보여?
그리고 내가 홈스테이하는 우리집 막내딸 이름도 라야, 내 이름이랑 똑같애. ”

A group of four people (two women and two men) are standing in a line on a paved path at night. They are dressed in casual, sporty clothing. The woman on the far left wears a red t-shirt and a long patterned skirt. The man next to her wears a yellow polo shirt and shorts. The man in the center wears a dark blue t-shirt and shorts. The woman on the far right wears a bright green t-shirt and shorts. They are all looking towards the camera with various expressions. The background shows a dark sky, trees, and a building. Four blue name tags are overlaid on the image, each containing a Korean syllable and its English transliteration.

파, FA

딘, DIN

운, WOON

라, LA

나. 라오스를
소개합니다



라오스는 3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

카올리 (한국)



안녕!

라오 룬



싸바이다!

몽



녀우정!

크무



스말럽!

라오 룬, 몽, 크무. 3민족은 전통,종교,언어,문화 가 모두 다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몬느아 마을은 몽족이 사는 마을이다.
우리는 처음 20일 동안 라오스의 공용어인 라오 언어를 배웠지만.. ... 다시 몽말을 배우고 있다.
전통 옷, 식생활, 언어 모두 다른 세 종족이 살고 있는 라오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다채로운 색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

방비엡은?

- 수도 비엔티엔주 **작은 관광 마을**로
- 비엔티엔과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 남송(Nam Song)강을 끼고 있으며 우림과 카르스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독특한 풍경을 자랑한다.
- 여행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이후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아주 급격히 늘었고
- 카약킹, 튜빙**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방비엠 다운타운 : 최근에 급격한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으로 물가는 올랐다.



방비엠 다운타운 : '라'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들이 많은 곳.. 마을에서 우리가 제일 그리워하는 곳 ^^

나. 라오스 소개

우리 마을 방비엠(Vangvieng)을 소개합니다

방비엠 주, 푸딘댕 마을

딘운파라가 바라본 푸딘댕 7 to 8



7. 방비엠 다운타운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라'의 생각 : 우리 집 앞에 갑자기 관광객이 많아진다면 싫어 ㅠㅠ..



나. 라오스 소개

우리 마을 방비엡(Vangvieng)을 소개합니다

방비엡 주, 푸딘댕 마을

딘운파라가 바라본 푸딘댕 7 to 8



나.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것이 생활화 되어있다.

'파'의 생각 : 350ppm으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요를 실천하고 싶어.



방비엠 주, 푸딘댕 마을

딘운파라가 바라본 푸딘댕 7 to 8



ㄷ. 플라스틱을 활성화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딘’의 생각 : 플라스틱을 태우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쓰고 있을까?



나. 라오스 소개

우리 마을 방비엡(Vangvieng)을 소개합니다

방비엡 주, 푸딘댕 마을

딘운파라가 바라본 푸딘댕 7 to 8



ㄹ. 포장된 도로도 곳곳에 구멍이 나있다.

'라'의 생각 : 똑똑을 한번 타도 다리에 이렇게 멍이 드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매일 이 길로 학교를 다닐까?



나. 라오스 소개

우리 마을 방비엡(Vangvieng)을 소개합니다

방비엡 주, 푸딘댕 마을

딘운파라가 바라본 푸딘댕 7 to 8



ㄱ.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대를 사용하는 문화이다.

'운'의 생각 : 난 휴지 없이.. 처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라오스 소개

우리 마을 방비엡(Vangvieng)을 소개합니다

방비엡 주, 푸딘댕 마을

딘운파라가 바라본 푸딘댕 7 to 8



비. 라오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여 술 문화가 많다.

'딘'의 생각 :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야.



나. 라오스 소개

우리 마을 방비엡(Vangvieng)을 소개합니다

방비엡 주, 푸딘댕 마을

딘운파라가 바라본 푸딘댕 7 to 8



사. 인사를 하면 누구든 웃으며 반겨준다.

'딘'의 생각 : 우리도 외국인을 만나면 이렇게 웃으며 인사해줄까?



나. 라오스 소개

우리 마을 방비엠(Vangvieng)을 소개합니다

방비엠 주, 푸딘댕 마을

딘운파라가 바라본 푸딘댕 7 to 6



ㅇ. 라오 3가지 민족 중, 몽족이 잘생긴 것 같다.

'파'의 생각 : 우리집 셋째 남동생은 진짜 잘 생겼어!!

'라'의 생각 : 라오, 몽, 크몽 중 몽족이 제일 잘 생겼어 ^^



방비엡 주, 푸딘댕 마을

딘운파라가 바라본 푸딘댕 7 to 8



8. 많은 학생들이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운'의 생각 : 도로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먼 거리를 타고 다니는지..
안타깝기도 하고 대단해.



우리 마을 방비엥(Vangvieng)을 소개합니다

방비엥 주, 푸딘댕 마을

딘운파라가 바라본 푸딘댕 7 to 8



츠. 라오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의 생각 : 난 차가운 음식이 좋은데.. 여기는 덥지만 차가운 음식을 먹지 않아.. 신기해..



다. 활동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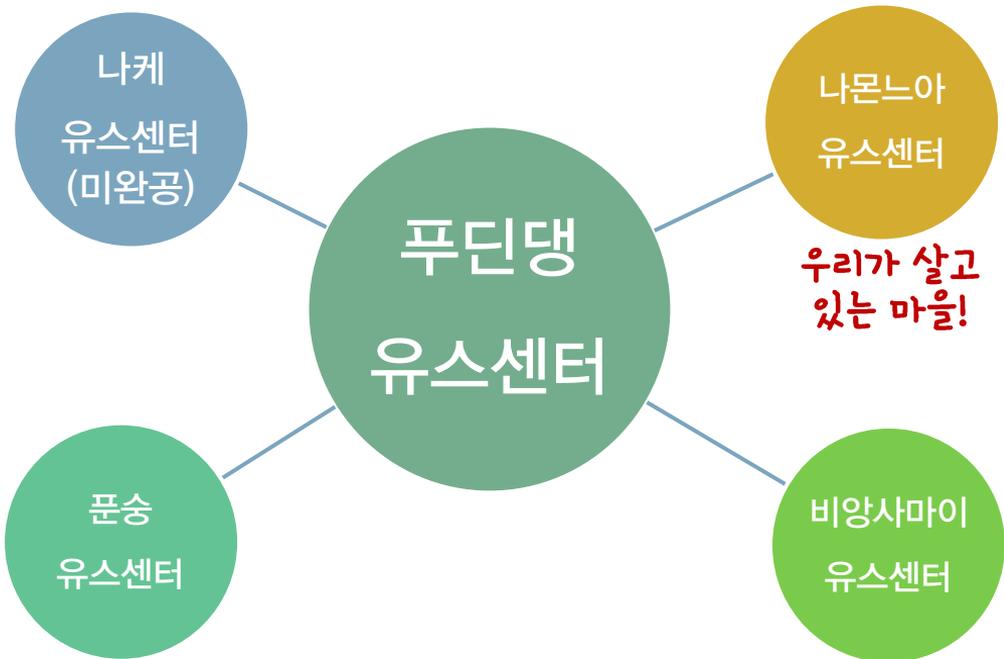


ㄷ. 활동보고

ㄷ. 활동지 소개



㉔-1. 유스센터 소개



푸딩당 유스센터를 중심으로 총 네 개의 유스센터가 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나몬노아**,

가장 시설이 좋았던 **푼송**,

아사라는 고등학생이 혼자 스태프로 봉사 하는 **비앙사마이**

마지막으로 이선재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자 처음 보았을 때 우리 모두 '우리나라 개화기 전..?'이라 느꼈던 **나케**까지!

㉔. 활동 보고

㉔-1. 유스센터 소개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가 생활한 PYC (푸딘댕 유스센터)

- 2003 school bus project
- 2004 opening library
- 2007 PYC opening officially
- ~2012 컴퓨터, 영어, 도서관, 댄스 프로그램 등의 활동 진행
- 2013. 4~ 현재까지.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4개의 센터를 코디네이팅 하는 역할



왼쪽 보이는 건물은 도서관,
그리고 오른쪽은 야외활동장



PYC의 정문



PYC의 정문

㉔. 활동 보고

㉔-1. 푸딩댕 유스센터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가 생활한 PYC 스텝 소개



㉔. 캄손 (31)

- ❖ 푸딩댕센터 청년대표
- ❖ 라온아띠 현지코디
- ❖ PYC 총 관리
- ❖ 나몬느아센터 관리



㉔. 시몬 (22)

- ❖ 5개센터 도서관 총 관리자
- ❖ 나케센터 프로젝트 관리자
- ❖ 회계



㉔. 캄밍 (28)

- ❖ PYC 환경관리
- ❖ PYC 문서관리
- ❖ 푼송센터 관리



㉔. 궤오 (22)

- ❖ 카페 운영자
- ❖ 핸드크랩 관리자
- ❖ 회계



㉔. 활동 보고

㉔-1. 유스센터 소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나몬느아 유스센터

- 활동: 영어, 컴퓨터, 댄스
- 학생: 70-80명 정도
- 라온아띠에게 원하는 활동: 영어, 컴퓨터, 캠페인, 미술
- STAFF: 남자1, 여자2



㉔. 활동 보고

㉔-1. 유스센터 소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나몬느아 스태프 소개



쿠왕 (20)

마니 (20)

실로 (20)

쿠왕(20)

- 나몬느아 유스센터 Boss
- C class 영어수업담당

마니(20)

- A&B class 영어수업담당

실로(20)

- A&B class 영어수업담당



㉔. 활동 보고

㉔-1. 유스센터 소개

라오 소주를 맛보게해준

폰송 유스센터

- 활동: 영어, 컴퓨터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STAFF들이 휴식하며 각자 아르바이트 중)
- 학생: 20명 정도
- 라온아띠에게 원하는 활동: 영어, 컴퓨터, 캠페인, 정규 초등학교 수업
- STAFF: 남자2, 여자2



다. 활동 보고

다-1. 푸딘댕 유스센터

크무족이 살고 있는 마을 비앙사마이 유스센터

- 활동: 영어, 댄스
- 학생: 20-30명 정도
- 라온아띠에게 원하는 활동: 컴퓨터, 댄스
- STAFF: 여자1



㉔. 활동 보고

㉔-1. 푸딘댕 유스센터

이 곳은.. 개화기 전? 세 종족이 함께하는 마을 나케 유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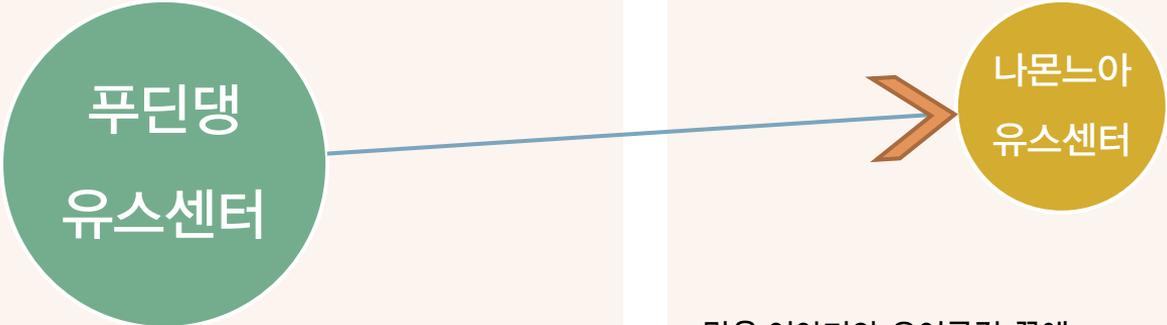
- 활동: 영어
- 학생: 70-80명 정도
- 라온아띠에게 원하는 활동: 영어, 정규 초등학교 수업
- STAFF: 남자1



ㄷ. 활동보고

ㄷ. 활동 내용





푸딘댕
유스센터

우리 라온아띠 네 명은 라오스에 도착한 3일부터 19일, 17일 동안 푸딘댕 유스센터에서 지내며 라오스의 여러 가지 문화들; 언어, 음식, 종교, 집, 농사 등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른 네 개의 유스센터를 모두 방문하며 앞으로 우리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지 스태프들과 긴긴 이야기와 회의를 통해 정할 수 있었다.

나몬느아
유스센터

많은 이야기와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한 달 동안 네 명이 함께 나몬느아 마을에서 지내게 되었다. 한 달 후부터 두 명씩 다른 마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이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몬느아에서의 첫날 밤..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팀원도 있었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샤워를 하고 자는 것이 불편하고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 잠을 못 이루는 우리가 되었다. 진짜 마을 주민이 되어가고 있다.

㉔. 활동 보고

㉔-1. 푸딘댕 유스센터

4 Fri	5 Sat	7 Mon	8 Tue	9 Wed
Breakfast & Around city	Orientation (histry of PYC)	Sharing life cycle	Learing Lao language	Visit Nakehe Youth Center
	Expectation (living)	Learing Lao language		
Lunch & Take a rest				
Vientiane To Vangvieng	Role of PYC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y	Learing Lao language	Look around Villge
	Phone, Safety, Deposit(passport)	Learing Lao language		Join Engilsh class
	Project planning	Learn Vangvieng		
Dinner				

㉔. 활동 보고

㉔-1. 푸딘댕 유스센터

10 Thu	11 Fri	12 Sat	14 Mon	15 Tue
Learing Lao language	Go to garden	Go to temple Learn Laos culture	Visit Phonsung Youth Center	Visit Namone neua Youth Center
Lunch & Take a rest				
Cleaning Phoudindaeng Youth center	Learn how to cook	Welcome party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y	Look around Village
			Learning Lao language	Join English class
	Learning Lao language	Visit Vangvieng	Learn Vangvieng	
Dinner				

㉔. 활동 보고

㉔-1. 푸딘댕 유스센터

16 Wed	17 Thur	18 Fri	20 Sat	22 Mon
Visit Viengsamai Youth Center	Cleaning inside room, around	Evaluation all program about orientation	Go to work in Nakhe village	Go to village
Lunch & Take a rest				
Evaluation about visit Namone neua Youth Center	Fixing fence of Phoudindaeng Youth center	Take a rest	Working in Nakhe village	
	Take a rest			
Dinner				

㉔. 활동 보고

㉔-1. 푸딩댁 유스센터

PYC에서의 라온아띠 활동



개인 핸드폰

국내훈련 때 팀별로 핸드폰을 하나씩 준다고 들었는데, 우리팀은 한명당 한개씩 줘서 좋았어.. 그게 우리가 떨어져서 지낼 것 때문이라는 건 알지 못했지 ㅎㅎ



라오스 요리

아산 ymca에서 왜 밥을 직접 해먹는지 알게 되었지.. 하지만 라오스 음식은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재료손질뿐이 도와줄 수 없었어! 그래도 2주동안 삼시세끼 라오스 음식을 먹었더니 마을에 와서 우리 가족 식생활에 적응하는건 정말 수월했어.

다. 활동 보고

다-1. 푸딘댕 유스센터

PYC에서의 라온아미 활동



DISCUSS

PYC 센터 직원들과 라온아미 4명이 둘러앉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라온아미는 라오스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 이야기 나누었어.



LIFE CYCLE

한국의 대학생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노는지 알려주고, PYC 직원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좋은 시간이었어!!

㉔. 활동 보고

㉔-1. 푸딘댕 유스센터

PYC에서의 라온아띠 활동



네 마을 방문

센터가 설립된 4개의 마을을 방문하고, 센터 직원들과 만나 각 센터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PYC 마당 청소

할머니집에서 제초를 하지 않고 라오스로 왔는데, PYC 제초를 해주게 되었어ㅎㅎ 햇볕이 심해서 빨리 오후가 되기를 기다렸는데, 그래도 햇볕이 심했어..

다. 활동 보고

다-1. 푸딘댕 유스센터

PYC에서의 라온아띠 활동



문화 체험

라오스에서 첫 종교 문화 체험!
곧 곡물 수확시기여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풍년을 기도하는 거래. 세
종족 중에서도 라오름족의 전통이야.
푸딘댕 센터 직원인 시몬 가족들의
도움으로 하루 전 가져갈 음식을 직
접 만들고 전통 옷을 준비하고..
황보 선생님과 시몬 가족, 계오까지
우리와 함께 해준 문화체험.
처음 접하는 생소한 체험에 옆사람
눈치도 보고 여기저기서 도움도 받으며
2시간 동안 진행된 예배를 마칠
수 있었어.

다. 활동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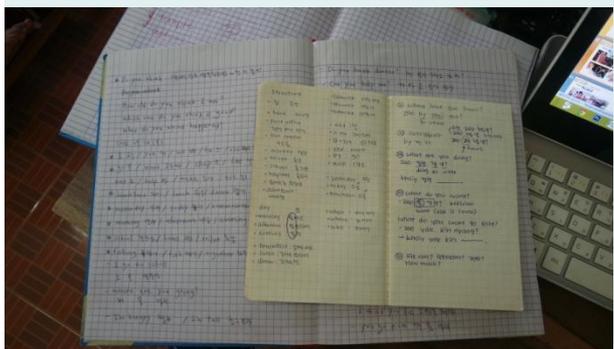
다-1. 푸딘댕 유스센터

PYC에서의 라온아미 활동



막노동..? 건축봉사

푸딘댕 센터 울타리 만들기, 나케 돌벽쌓기까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마을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 피부가 타는 게 느껴지는 구만



라오 언어 공부

PYC에 오자마자 한 첫 활동이자 라오스에서 5개월을 지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인 언어!!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몽언어를 공부해야 된다는거..

㉔. 활동 보고

㉔-1. 푸딩댄 유스센터

PYC에서의 라온아띠 쉼



Welcome party!
술 파티!

PYC에서 준비해준 라온아띠
Welcome party!! 가장 즐거워 보
이는 단은 초반 과도한 맥주로 인해
뽀고. 남은 사람들끼리는 노래를 크
게 틀고 다같이 춤췄어. 끝난 줄 알
았는데 2차를 가더라. 2차 가라오케
에서는 시몬의 남자친구 째미와 그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까지 있었어. 이
제는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어가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㉔. 활동 보고

㉔-1. 푸딩댄 유스센터

PYC에서의 라온아띠 씬



에어포트에서 외식

옛날 비행장이었던 에어포트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장마차 같은 것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곳이야. 이곳에는 현지인들이 자주 먹는 간식인 부화 직전 계란이 있어ㅎㅎ 도전하지 않았어.. 스케줄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이곳에서 다같이 저녁 식사를 하곤 했어.



야시장 구경

어렸을 적, 우리집 앞에 야시장 열었던 것이 생각났어. 풍선 터트리기, 관람차, 맛있는 주스 구경거리가 많아 라온아띠가 출동해서 재미있게 놀았지 ^^

㉔. 활동 보고

㉔-1. 푸딘댕 유스센터

PYC에서의 라온아띠 활동



블루라곤

라오스 하면 블루라곤 블루라곤 하면
라오스!! 우리가 그곳을 와보다니!!
2주간 방에만 있었던 우리에게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였고 힐링 되는 시간
이었던. 한국에서 하지 못한 다이빙
을 원없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3M, 5M! 골라가며 뛰어 내렸지. 언
제나 같이 해주고 그 다음 날이면 마
을로 떠나는 우리를 위해 PYC 스텝
들이 노력해주는 것이 고마웠던 하루!
우리에게도 스텝들에게도 잊지 못할
하루.

㉔. 활동 보고

㉔-1 나몬느아 유스센터

몽족이 사는 마을

방비엥에서 뚝뚝을 타고 무려 30분 거리..

인터넷이 안 되는 마을

(3g 사용을 위해 오토바이 타고 강가로..)

사람만큼 소, 닭, 개가 많은 마을

여자들이 결혼을 빨리 하는 마을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마을

나몬느아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마을

시장까지 오토바이로 30분 거리

마을 사람 대부분의 직업은 농부

마을 가운데 군인들이 거주

(주요업무 : 라온아띠 감시)

6시 이후, 외국인들끼리 돌아다니면 잡히는 곳

나몬느아 마을 지도

재원 LA

센터

태우 DIN

예찬 FA

룡 WOON



㉔-2 '나몬느아'마을의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딘 (DIN) 가족



- ❖ 아버지 : 나몬느아 이장님
- ❖ 어머니 : 나몬느아 이장님 아내
- ❖ 갑जू아(18) : 학교 기숙사에 사는 남동생
- ❖ 빠티아(14) : 볼 살이 귀여운 여동생
- ❖ 팽투타우(12) : 축구 좋아하는 남동생

“ 나몬느아의 가장 힘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와 항상 밥 잘 먹는지 챙겨주시는 우리 어머니, 학구열 좋고 음식 잘하는 우리 귀염둥이 빠티아(생긴 건 애긴데 닭을 잡아요..무서버), 수줍음 많고 장난꾸러기인 팽까지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다른 가족들까지 잊지 못할 가족일 것 같아.

”

㉔. 활동 보고

‘나몬노아’마을의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딘 (DIN)이 사는 그 집



귀여운 여동생 빠티아와 절친 마니아



딘이 사는 그집



너무 심하게 자연스러운 나의방



밤마다 영어를 가르치고 밥 먹는 거실

‘나몬노아’마을의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운 (WOON) 가족



- ❖아빠
- ❖엄마
- ❖빠오송(20) : 말 많은 미남
- ❖빠영(18) : 머리가 다리에 닿는 미녀
- ❖지송(17) : 아빠를 속 빼닮은 남동생
- ❖여(13) : 언니를 닮아 남자 좀 울릴 여동생

“ 우리집 가족은 외모가 타고난 집안. 활발하고 교육에 관심많은 아빠, 아빠를 속 빼닮은 남동생 지송, 재원이와 예찬이가 외모에 빠진 장남 빠오송, 엄마를 닮아 남자 여럿 울릴거 같은 미모의 여동생 빠영, 말없이 이것저것 챙겨주는 엄마. 얼마안남아서 아쉽다.

”

㉔. 활동 보고

‘나몬노아’마을의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운 (WOON)이 사는 그 집



우리집 거실



내가쓰는방 입구



우리집 미모담당 여동생 빼영



땀감을 쓰는부엌



우리집전경

‘나몬노아’마을의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파 (FA) 가족



- ❖ 삼촌(45) : 노총각이지만 늘 행복한 삼촌
- ❖ 엄마 (40) : 약 발라주며 말 걸어주는 엄마
- ❖ 마니 (20) : 나보다 어리지만 대단한 실질적 엄마
- ❖ 타이(18) : 말이 안 통하면 웃는 남동생
- ❖ 통 (16) : 축구를 좋아하는 매너 좋은 남동생
- ❖ 룡 (14) : 권투상대, 말 안 들어주는 남동생
- ❖ 버 (10) : 몽 언어 선생님 남동생
- ❖ 팔라이(5) : 나랑 놀아주는 여동생

“ 날 잘 챙겨주는 엄마와 마니, 화장실에서 만난 삼촌;; 내가 매일 귀찮게 해도 웃어주는 남동생들, 나랑 잘 놀아주는 막내 팔라이, 이제는 친해져서 샤워 끝나면 나한테 수건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동생들ㅎㅎ 집에서 지내는 동안 심심하지 않았어. 아직 헤어지지 않았는데 보고싶을 것 같아..ㅠㅠ ”

‘나몬노아’마을의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파 (FA)가 사는 그 집



우리집



가운데 방이나와 마니가 지내는 방
왼쪽방은 남동생들, 오른쪽방은 엄마와 여동생



전통방식을 살린 부엌&식당



부엌&식당내부



마루에서 바느질하시는 엄마와 이모

‘나몬노아’마을의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라 (LA) 가족



- ❖ 아빠(47)
- ❖ 엄마 (38)
- ❖ 실로 (20) : 우리 집 실질적인 엄마

- ❖ 꺼(15) : 백치미가 귀여운 여동생
- ❖ 라 (13) : 인기 많은 여동생
- ❖ 봉 (9) : 수줍음 많은 남동생
- ❖ 송빠오 (7) : 제일 귀여운 남동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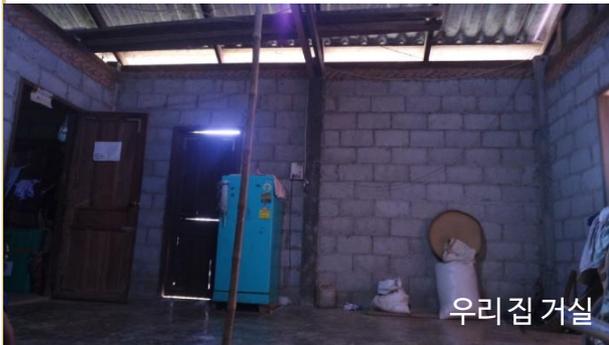
이 곳 마을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게 수입이 농작물을 판매에서 발생하는데 나는 여기서 지낸 14일 동안 우리 엄마, 아빠를 3번 밖에 못 봤어. 매번 농장에 가서 주무시거든. 주말이면 모든 가족이 농장으로 총출동해서 함께 일을 하고 그래. 엄마는 나를 보면 그냥 항상 웃으셔. 그냥 내가 웃긴가봐. 그리고 내가 점점 몸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나한테 더 말을 거시는데... 못알아 듣겠어...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처음에 수줍어했던 여동생이랑 남동생들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침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물론 나랑 놀려는 건 아니고 내 노트북으로 영화 보려고. 그래도 나한테 부탁하는 것도 어려워하던 애들이 먼저 같이 게임하자 그러고 말 걸고 머리 말아달라고 하는 거 보면 뿌듯해! 확실히 내가 말이 늘으니까 더 다가오는 것 같애. 실로는 나보다 두 살 어린데 밥도 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완전 우리집 엄마야. 항상 나한테 “Be careful, be careful” 말해주고! 점점 우리 집에 정 들고 있어.

”

'나몬노아'마을의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라 (LA)가 사는 그 집



딘운파라가 관찰한 나몬느아



ㄱ. 방이 구분되었지만, 천장이 뚫려있다.

‘파’의 생각 : 옆방 소리가 너무 잘 들려.. 특히 아침시간에...

‘라’의 생각 : 난 옆방 우리 막내 잠꼬대 소리를 들으면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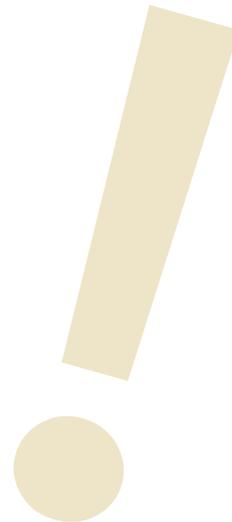


딘운파라가 관찰한 나몬느아



ㄴ. 모든 쓰레기는 강에 버린다.

'파'의 생각 : 동생이 태운 쓰레기 잿더미를 버리러 가길래 따라갔더니.. 강물에 버렸어..ㅎㅎ



딘운파라가 관찰한 나몬느아



ㄷ. 매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축구시합이 열린다.

'파'의 생각 : 내 둘째 남동생도 축구를 정말 좋아해.. 맨발로 매일 축구를 하지



딘운파라가 관찰한 나몬느아



ㄹ. 물을 사먹지 않는다.

'파'의 생각 : 수돗물이 곧 생수야. 집에 물이 있길래 먹었는데 내가 샤워하는 물을 받아서 먹더라구ㅎㅎ



딘운파라가 관찰한 나몬느아



㉔. Primary 영어수업은 배정되어 있는데, 수업은 하지 않는다.

'라'의 생각 : 정규수업이지만 영어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 라온아피가 일주일에 한번씩 정규학교에 수업을 나가



딘운파라가 관찰한 나몬느아



○. 밥을 물에 자주 말아 먹는다.

'라'의 생각 : 찬물, 배추 끓인 물에 밥을 말아먹어. 상을 보면 큰 대접에 반찬처럼 물이 올라와 있어. 몽족의 전통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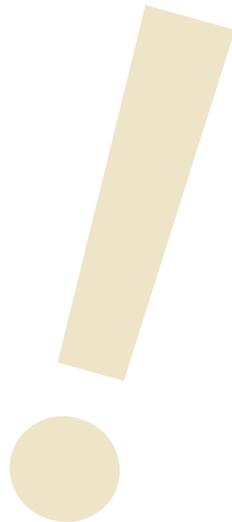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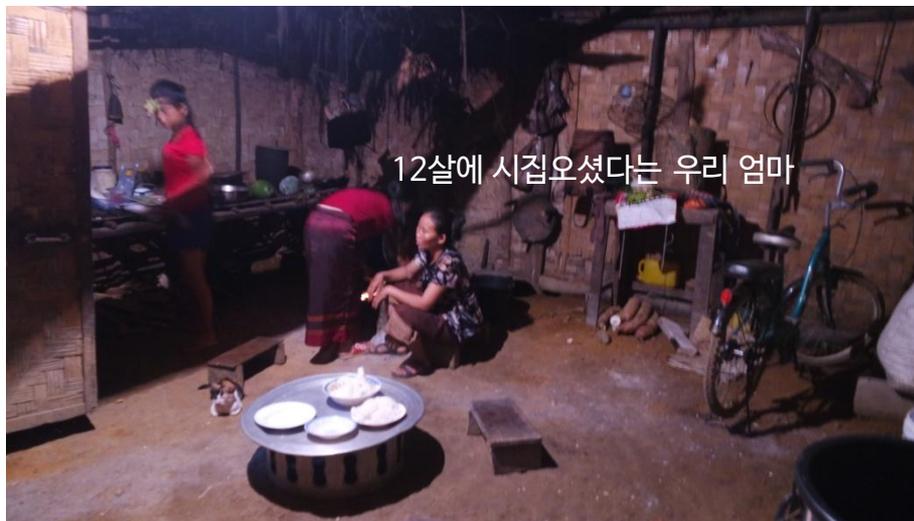


딘운파라가 관찰한 나몬느아



ㄴ. 여자 아이의 교육은 남자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라'의 생각 : 몽족은 여자가 일찍 결혼을 하고, 또 남편이 사는 마을로 시집가기 때문인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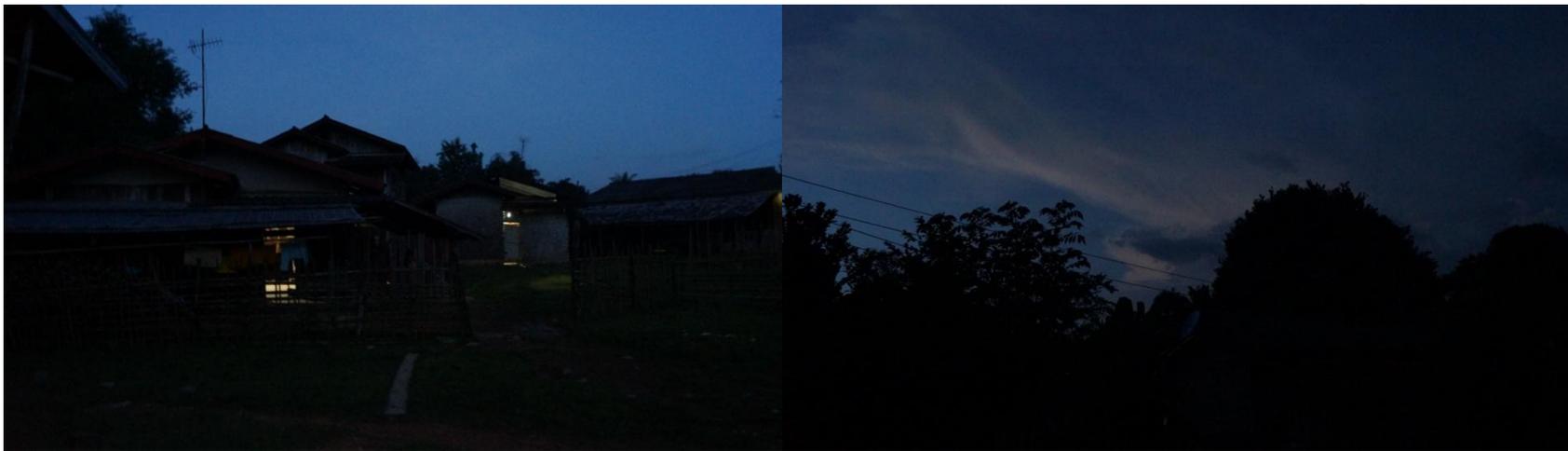


딘운파라가 관찰한 나뭇노아



ㄱ. 달빛으로 거리를 비추는 나뭇노아

'딘'의 생각 : 마을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지만 저녁에 달이 뜨면 달빛으로 길을 볼 수 있을 만큼 크고 멋진 달이 나뭇노아에는 존재한다. (스펀지여?)



딘운파라가 관찰한 나몬느아



㉔. 모든 집이 쓰레기를 태운다.

'딘'의 생각 : 쓰레기 소각장이 따로 없을 뿐더러 쓰레기를 가져가는 회사도 없는 라오스 마을에서는 대부분 쓰레기를 길가나 집 앞에서 태운다. Garbage Bank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



㉔. 활동 보고

㉔-2. 나몬느아 유스센터

나몬느아에서의 라온아피 활동

	9:00 - 10:00	30min	10:30 - 11:30	11:30 - 2:00	2:00 - 3:00	3:00 - 4:00	4:00 - 6:00
M	Discussion	B		L	general computer	Typing	
T	Korea+Lao	R	English	U	Power point	+	English
W	Activity	E		N	Excel	Review	+
Th	Korea+Lao	A		C	Primary school prepare		Computer
F	Discussion	K	Go to  Primary School	H	Word	Typing + Review	CLASS
S	Activity	Time	Activity	♡	Dance		

ㄷ. 활동 보고

ㄷ-2. 나몬느아 유스센터

나몬느아에서의 라온아띠 활동

	9:00 - 10:00	30min	10:30 - 11:30	11:30 - 2:00	2:00 - 3:00	3:00 - 4:00	4:00 - 6:00
M	Di 회의 on	B	스태프 영어교육 English • 문법 • 읽기 • 말하기 	L	general computer Typing	English + 컴퓨터교육 Review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영어 클래스 Computer	
T	언어 교육	R		U	Power 스태프		
W	Activity	E		N	Excel		
Th	언어 교육	A		C	• 기초컴퓨터 • 엑셀 mary school • 파워포인트 prepare • 워드		
F	Di 회의	k		Go to  Primary School	H		Word Typing + Review
S	Activity	Time	Activity	♡	Dance		

ㄷ. 활동 보고

ㄷ-2. 나몬느아 유스센터

나몬느아에서의 라온아피 활동

회의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새로운 주를 시작할 때와 끝내는 오전에 모두 함께 회의를 하기로 했어. 영어로 소통하며 회의하는 게 쉽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서로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CLASS를 어떻게 나누면 아이들에게 더 효율적일지, 토요일의 ACTIVITY나 END-POVERTY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어.

언어 교육

우리는 라오스 친구들에게 라오언어와 몽언어를 라오스 친구들은 우리들에게 영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어. 몽언어를 배울수록 라오언어를 까먹는 기분이야.. 몽족으로 태어나면 공용어인 라오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2개 국어를 하는거야. 정말 대단해

ACTIVITY

활동을 계획했지만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 여긴 농촌마을이라 STAFF들이 자주 농장에 가서 활동을 못하고 있어. 하지만 10월 17일 빈곤퇴치캠페인을 기준으로 활동을 해보려고 해!! 나몬느아는 쓰레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 쓰레기 관련 활동을 할 것 같아.

PRIMARY SCHOOL

우리가 임용고시를 치지 않고, 어디서 정규초등수업을 해보겠어 ㅎㅎ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한 명씩 다른 반에 들어가 가나긴 수업을 하고 있어. 처음 경험했을 때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수업부터는 재밌었어.

㉔. 활동 보고

㉔-2. 나몬느아 유스센터

나몬느아에서의 라온아띠 활동



BEFORE



AFTER

나몬느아에서의 라온아띠 활동

스태프 교육

이 곳 나몬느아에는 라온아띠 이전에도 많은 한국의 단기 봉사단과 5개월은 함께 활동한 장기봉사단들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럼에도 계속 봉사단이 필요하다는 센터의 요구를 들었고 '지속 가능성' 을 떠올렸다. 우리가 이곳을 떠난 후에도 스태프들이 스스로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나가며 학생들을 스스로 가르치기를 원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보다 스태프 교육에 힘을 쏟자고 말했다. 잘 실천되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영어: 문법/ 읽기/ 말하기

컴퓨터: 기초 컴퓨터/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학생들 교육

처음 분반이 되어있지 않고, 스케줄이 너무 유동적이어서 멘붕이었다. 컴퓨터가 10대 뿐이라, 모든 아이에게 컴퓨터 수업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최대한 많은 아이가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 수업 스케줄을 변동하고 있다.

영어 수업은 나몬느아 스태프 3명의 주도 하에 라온아띠가 보조 강사로, 컴퓨터 수업은 라온아띠의 주도 하에 나몬느아 스태프가 보조 강사로 가르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㉔. 활동 보고

㉔-2. 나몬느아 유스센터

나몬느아에서의 라온아피 활동

학생들 교육

Namon neua Time Table ☺

① Computer class

Mon	Tue	Wed	Thu	Fri
	B T: Woon A: Ku rang		B T: Woon A: Kuyama	
C T: La & Fa A: See & Ni	D T: La & Fa A: See & Ni	C T: La & Fa A: See & Ni	D T: La & Wun A: See & Ni	C T: La & Fa A: See & Ni

② English class

Mon	Tue	Wed	Thu	Fri
B T: See & Ni A: Woon	A T: See & Ni A: Fa	B T: See & Ni A: Woon	A T: See & Ni A: Fa	
C+D T: Din A: Ku	C T: Ku A: Din	C+D T: Din A: Ku	C T: Ku A: Din	C+D T: Din A: Ku

4:00-5:00 : နာမံ ပံး နီယံ .
 5:00-6:00 : နာမံ ပံး ၂ - ပံး ၃
 6:00-7:00 : နာမံ ပံး ၄ - ပံး ၇ နီယံ
 နီယံ ပံး ၈ နီယံ ပံး ၉
 နီယံ ၇၀ .
 ဧကီဧကီ နာမံ ပံး နီယံ .

Class ☺

A class : Primary Grade 1 ~ 3
 ပံး ၁-၃ နီယံ ၁၂-၁၃

B class : Primary Grade 4 ~ 5
 ပံး ၄-၅ နီယံ ၁၄-၁၅

C class : Secondary Student
 နီယံ ၁၆-၁၇

D class : High Student
 နီယံ ၁၈-၁၉

르. 개인에세이



딘의 개인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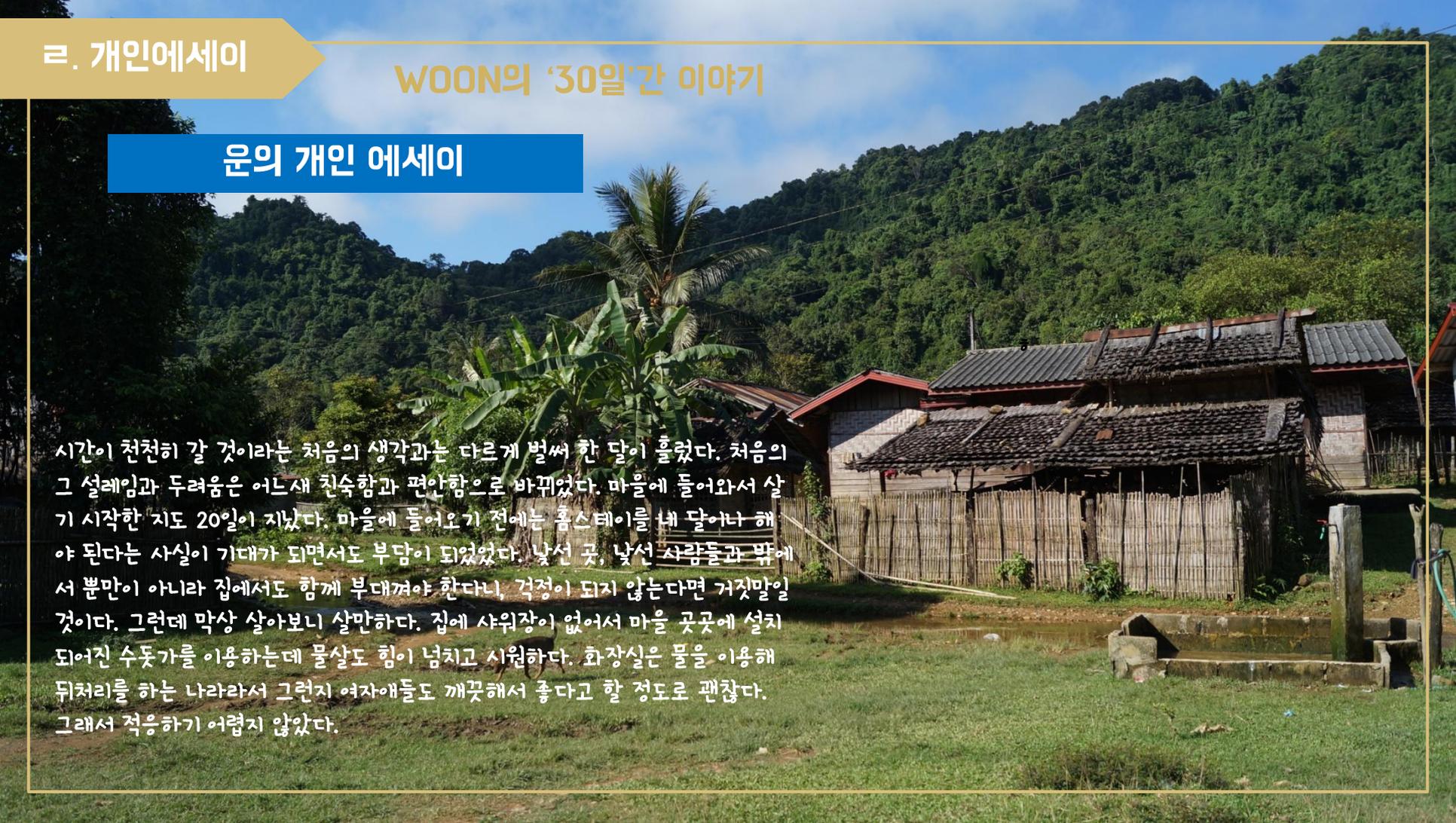


한 달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오자마자 물 알려지와 감기를 제일 먼저 해버렸다. 한국에서 지내던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내 몸 상태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금방 적응하는 내 몸이 또 신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빠르게 감정도 변해가고 있었던 것 같다. 순간순간 느끼는 불안감 행복감 화남 고마움 등등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이 모든 과정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 생각 하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좋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아직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때로는 목표가 있어야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다른 것 같다. 모든 라온아띠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애매모호 하지만 이해가 간다. 어쨌이든 지금 개인 에세이를 쓰고 있는 중에도 시간은 가고 있으니 말이다.



운의 개인 에세이

시간이 천천히 갈 것이라는 처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벌써 한 달이 흘렀다. 처음의 그 설레임과 두려움은 어느새 친숙함과 편안함으로 바뀌었다.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도 20일이 지났다.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는 홈스테이를 네 달이나 해야 된다는 사실이 기대가 되면서도 부담이 되었는데. 낯선 곳, 낯선 사람들과 밖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함께 부대껴야 한다니,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살만하다. 집에 샤워장이 없어서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진 수도꼭지를 이용하는데 물살도 힘이 넘치고 시원하다. 화장실은 물을 이용해 뒤처리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여자애들도 깨끗해서 좋다고 할 정도로 괜찮다. 그래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다.



운의 개인 에세이

그런데 적응하고 편해지니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처음의 설레임과 두려움만 잊은 것이 아니라 오기 전의 각오와 목적도 흐릿해지는 기분이다.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생활 패턴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나태함에 내가 잡아 먹혀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섯 달이라는 시간만 채우다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난 한 달과는 다른 행동과 생활을 해야 될 거 같다. 라오스에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적응은 끝났다.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본격적으로 살아나가야겠다.



“ 5개월이 어떻게 지나갈까 걱정하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30일이나 시간이 지났다. 9월 중순까지 오리엔테이션 겸 라오스 적응기간을 지나면서 라오스를 방문한 사람들 중 가장 라오스다운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마을에 라오스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니 이때까지 바라본 라오스는 라오스다운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을 방문하기 전 나의 고민은 '라온아띠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350PPM, 빈곤퇴치 캠페인과 관련된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를 들면, 거리에 쓰레기가 많은 것,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는 것, 중앙선이 없는 것 등등.. 라오스 350PPM, 빈곤퇴치 캠페인인데 나도 모르게 한국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내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다. 라오스의 고민을 알기엔 내가 아직 라오스의 눈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진짜 가족,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로 바뀌었다. 진짜 가족이 되면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난 노력했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가족, 친구가 되는 방법은 힘든 일을 함께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이야기하며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쉬는 날 농장에 나가 일을 도와주며,

”



“ 가족들에게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남동생들과 함께 낚시,도 따라가고, 함께 수영도 했다. 내가 나뭇노아를 떠날 때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 한명이라도 내가 떠나는 것이 서운해서 슬퍼해줄 가족과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어쩌면 가장 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가족, 친구가 되고 싶다. 하지만 재원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 내 존재를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다. 내 입장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내가 중심인 것을 보니 아직 내가 라온아띠가 되려면 멀었보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국의 눈으로 라오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라오스의 눈으로 라오스를 바라보는 것이다. 남은 4개월 라오스의 눈을 가지는 것이 내 목표이자 바람이다. 라오스 생활 1개월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4개월 후엔 또 어떤 생각을 할 지 기대된다~ ”

개인에세이를 쓰려고 일기를 한번 쪽 둘러봤다. 처음 며칠 나는 '내가 이 곳에 어떤 의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과연 나는 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나와 다른 건지, 우리와 다른 건지 이 곳 라오스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습관, 생각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것들을 한 발치 뒤에서 이해해보려는 시간을 가지는 힘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에게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어디까지가 내가 이해해야 하는 선이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을 드러내야 하는 선인지 내 생각이 욕심은 아닐지 하는 갈등이 크다.

나몬노아에서의 생활은 내 한국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 힘들 것 같았고 첫 날은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이제 이 곳의 삶이 나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썬을 두르고 수돗가에서 샤워하는 것도, 우리 가족 8명이 작은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밥상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고양이를 내쫓는 것도, 매일 아침이면 길 바닥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소똥도, 심지어 소똥을 보면서 이 소는 건강이 안 좋네 생각하는 나를 발견했다.



르. 개인에세이

LA의 '30일'간 이야기



라오스에 온지 딱 한 달이 됐을 때 한국에 가장 내 친한 친구와 전화를 했는데 내가 많이 변했다고 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분명 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구나'. 하루하루를 후회하지 않으며 즐기고 싶다. 괜한 걱정 때문에 내 눈앞의 이 멋진 사람들과 광경을 놓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그 삶에 적응하는 건 어떨지, 이곳에서의 기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건 아닐지 문득 떠올린다.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적어도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며칠간 고민했던 '내가 이곳에서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 같은 의미 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Have you got any brothers? what are their names?
How old are they?
his is 20 years old
is one the brother



마을에서 건강하게 생존해있겠습니다!
10월에 봐요

